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국투자 입지동기 분석

- 현대자동차 미 앨라배마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

서정욱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 jwsuh96@mofat.go.kr)

해외직접투자(FDI)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연간 70만대 이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나, 미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연간 4천여대에 불과하다는 양국간의 현저한 무역수지 불균형 상황이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통상압력의 직접적 배경을 구성한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소로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표준 및 적합 관련 조치 등과 같은 미국이 자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수입규제조치와 한국 국내 자동차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라는 두가지 차원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지역(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후, 지형, 수송, 유틸리티, 주변의 산업환경, 지방정부의 지원 등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일반적인 입지조건이 어느정도 충족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 단위의 적극적인 유치노력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입지결정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인(factor)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독점적 우위이론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incentive structure)의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강력한 필요조건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